

제주해녀의 삶과 노래
- 해녀 故안도인安道仁의 생애사 -

좌혜경

1. 물질수련기

안도인은 1926년 북제주군 동부지역 행원리에서 태어났다. 행원리는 ‘바람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바람 매섭기가 그지없다. 바다로 불어오는 개펄 바람은 한 여름에는 무더운 더위를 싹 실어가지마는 겨울에는 사납기가 해녀들의 벗은 몸에 칼을 에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땅은 거칠어 대부분의 밭농사는 보리, 조, 콩 이외의 작물은 생각지도 못했고, 바다를 주 생산 무대로 살아, 바위에 돌아있는 패나 툄 등은 그들의 반찬인 부식거리가 아니라 주식거리였다. 먹을거리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툄이나 패를 캐어다가 그것을 나무 장작으로 푹 삶아서 맑은 물에 담그면 붉은 물이 쭉쭉 울어난다. 몇 차례 걸러내고 좁쌀을 넣고서 밥을 하면 그것 역시 별미이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 바닷가에 나와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공동으로 모이는 곳 불턱은, 그들의 아픔 기쁨을 그대로 전달하는 나눔의 장소가 된다. 어느 날 행원리 불턱가에서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해녀들은 귀를 기울인다.

도인의 부모도 행원리 다른 집들처럼 주로 어업에 종사했다. 아버지는 배의 선주였고, 어머니는 잠수였다. 도인이 태어나서 4살(1929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무슨 삶의 어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는지 도인을 버리고 개가했다. 일설에는 상당히 매운 시집살이의 고통 때문이라고 하나, 그 이유는 어린 도인으로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당시에 도인은 아명으로 그렇게 특별한 뜻이 없이 ‘빌레’라는 이름을 가졌다. 남들이 ‘빌레’, ‘빌레’라고 부르는 아이는 친어머니가 계시지 않아도 건강하며 장난기 어린 눈을 가진 계집아이였다.

아버지는 선주로서 해녀들을 모아 육지에 물질을 가버리면 도인은 늘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당시 부친의 형제간들은 장남인 아버지와, 숙부가 계셨고, 고모 두 분이 계셨는데, 조카를 아주 사랑하여 놀러 다닐 때에는 데리고 다녔다. 친할머니는 손자에게는 다정한 할머니였으나, 며느리에게는 엄한 분이셨다.

아버지는 남자 혼자 살기가 어려워 육지에 해녀모집을 하고 선주로 갔다가 옆 마을 한동리 출신 해녀와 재혼을 했다. 친어머니 가까이 없는 도인에게 새어머니는 상당한 기대의 대상이었으나 어려운 삶에 있어서 새로 오신 분은 전통적인 계모상이었던 것 같다.

13세(1938)가 되자 당시에는 마을에 야학이 생겼다. 친구들은 밭농사와 집안일 등을 돕다가도 저녁에는 ‘복습방’에 가서 한글 익히는 공부를 했다. 도인도 아버지가 울산에 계신 동안 몇 차례 복습 방에서 한글 공부도 하고 이름 쓰는 것도 배웠다. 어느 날 집에 오신 아버지는 무릎 꿇게 하고 다시는 복습방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옛날 여자들은 배우지 않아도 살림만 잘했어, 공부하러 나다니답시고 남녀가 모여서 갈보 질이나 하고...” 도저히 아버지의 강단剛斷을 어찌할 수 없어서 공부라는 것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글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결국은 문자 해득의 기회를 잃어서 지금껏 자신의 이름이나

쓸 정도다.

그렇지만 ‘한글을 깨치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은 해 본 적도 없다고 한다. 당시에 도 도인은 상당히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 처음 물질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테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승낙의 징표인데, 아버지는 도인에게 물질도 허락하지 않았다.

새어머니에게 동생이 생겼다. 두 달 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는 물질 해녀로, 아버지는 18명의 해녀들을 모집하고 3월에 울산 당포로 나가게 되었다. 이때 도인도 아기엽게로 육지에 첫발을 디디게 된다.

울산 당포에서 1년 정도 아기엽게를 하면서, 비록 부모가 곁에 있어도 고향의 벗들과 친척들과 떨어져 있는 도인은 너무도 많은 외로움을 느꼈고, 바쁜 부모는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

새어머니는 물질이 서툴어 뱃물질보다는 주로 꺾물질을 했다. 도인은 세 살 난 동생을 업고 놀면서 주로 집에서 보냈다. 아버지는 소로바구니에 점심을 싸서 아침 일찍 당포에 뱃물질을 가신다. 물질을 다녀오고 배 청소를 끝낸 후, 오다가 탁주라도 한잔 걸치는 날이면 밤 10시가 넘는다. 아버지는 늘 뱃창가에서 목청 좋은 소리로 ‘이여싸소리’를 하신다. 후렴구에 붙여진 사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쑤지가 있다. 그것은 ‘설룬 설룬 나딸아(서럽고 서러운 내 딸아), 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다. 곧 아버지는 바다에서 하는 물질 작업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도인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도, 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딸에게는 물질작업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도인은 잘 알고 있었다.

아기와 둘이서 노는 것은 심심하고, 고향에 살던 때와는 너무도 다른 생활에 도인은 힘이 들었다.

같이 물질 간 해녀들은 늘 아버지에게 도인의 심정을 대변해 주었다. “빌레를 할머니 손으로 보내십시오, 너무 어린 것이 고생을 해서 안되겠습니다”

어느 날 제주에서 한 해녀에게 전갈이 왔다. 시어머니 임종이 가까왔다는 것이다. 그 해녀는 물질을 접어두고라도 제주로 일시적인 환 고향을 해야한다. 그것은 아마도 배선주가 제주사람이고 고향사람이라 여러 사정을 이해해서 봐 준 까닭이라고 했다. 육지나 일본의 배선주인 경우는 부모 친상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도인은 같은 마을의 해녀를 따라서 다시 제주에 들어오고 할머니의 품에 안기었다. 조상의 품안과 한라산 자락, 늘 상 바라보던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가 그녀에게는 안온한 품안이었다.

16세(1941년)가 되자 할머니는 무슨 뜻에서인지 아주 자그만하고 장난감 같은 테왁과 망시리를 만들어 주었다. 망시리는 한라산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역새가 완전히 피기 전에 것(미)을 가지고 꼬아서 만드는 데 나일론 끈보다도 훨씬 질겼다. “도인아 ‘볼락통’에 가서 숨비고 물에 드는 연습을 해봐라, 물 속에 들어가서 돌도 끄집어내어 보고, 듬복도 끌고 나오고 하면서...” 볼락통이라는 말은 볼락이라는 토종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바다이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물질 경험에 따라서 생산물에 따라 그 바다나 암초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의 머리 속에 입력이 돼 있어서 어느 바다, 어느 곳에 가면 무슨 해산물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가게 된다. 바다 밭이나 여 이름은 자연스레 익혀지고 집에 누워있어도 어느 바다에 전복이 꾸물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행원리 바다밭에는 미역, 숨, 성게, 문게(문어) 오분작이 많이 나는 더벵이물, 흰돌코지, 큰

여, 노락코지, 오저여, 물게낭게가 있다. 서쪽편 너븐여, 웃너븐여, 알너븐여, 개굴레, 웃만서여, 셋만서 등에는 고동, 해삼, 성게가 많이 난다. 외에도 박꺼문여, 셋꺼문여, 방엿여, 앞바당, 지풍개에는 고동과 해삼이 많이 나고 해산물이 거의 없는 동그랑여도 있다.

친구들과 매일 물에 드는 연습과 물 속에서 오래 숨쉬기를 연습했다. 이제 도인의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두발 정도의 바다물 깊이에 가서 제법 해산물을 채취해 오는 친구들도 있었다. 조상 대대로 하던 생업이고,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도인의 물질 기량은 나날이 늘었고 어느덧 가슴속에서는 상군 해녀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나갔다. 행원리 바다는 생산물이 많아서 해녀들은 행원리 바당이 넓고 좋은 바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행원리 바다는 다른 지역의 바다를 자신들의 밭으로 만들었다. 도인이 언젠간 나이든 해녀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나곤 했다.

“행원리 사람들은 바당에서 너희들 대代까지도 먹을 것은 벌어먹나, 열심히만 하면 살 수 있어, 부모님 것도 공칫(것), 형제 것도 공칫이라도 물엿 것만큼 공칫인 것은 없다”

겨울 어느날 아침 월정과 행원 경계바다 ‘지풍개’에 시신이 떠올랐다. 물질 나간 행원리 해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그 쪽을 가리켰다. 시신은 겨울바다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분명한 얼굴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를 않았다. 월정리 주민들에게 연락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해녀들은 남편들과 함께 시신을 묻었다. 도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질하다 바다에서 시신을 보면 무섭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시신처리로 월정리 마을 밑 가까이 있는 바다가 행원리 바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성인이 된 이후의 일이었다. 그리고 한동과의 경계 역시도 시신처리로 한동에 속해있는 바다인 더벵이물까지 자신들의 바당밧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바당싸움을 할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삼촌들이라 할 지라도 호미로 망사리를 찢으면서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게들 싸운다. 여자들 싸움이라 고성어 오가고 서로 머리채를 쥐어흔들면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다시 새어머니에게서 동생이 생겼다. 아버지는 울산에 아기업게를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다시 여동생이 생긴 것이다. 그녀들은 육지물질에서 태어나 육지물질로 남편을 만나서 지금도 강원도와 포항에 살고 있다.

도인은 마음 속으로 이번만은 전과 다를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도 아기 돌보는 것이 아니고 물질경험도 해보겠다고 작정했다. 발동선을 타고, 수평선을 지나 제주 바다를 넘어 갈 때 바라보는 한라산은 전에 없이 온 섬을 바다로 뒤집어 쓴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섬사람이야,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물질을 하지 않으면 살수가 없어, 나도 꼭 상군이 돼야지”하고 섬사람으로서의 인식을 처음으로 해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도인도 이제는 해녀들의 무리 속에 끼어 들어 제법 농담을 하며 잘 어울렸다. 한편, 선배 해녀들이 부르는 ‘이엿싸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행원리에서는 해녀노래라 하지 않고 ‘이엿싸소리’라고 부른다. 선배 해녀의 노래를 귀기울여 들어보았다. 발동선을 타고 갔지만, 자신들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 젓는 소리를 울적할 때면 목청이 좋은 해녀가 선소리를 메기면, 배에 탄 해녀들이 전부 ‘이엿사 이여도싸나’하고 후렴을 붙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물질은 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기업게만을 하라고 시켰다. 아마 아버지는 도인이 어려서부터 물질하는 것을 그렇게 바란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도인은 언제 나도 저들과

함께 물질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조바심이 났다.

“아버지 저도 물에 들어갈게요”

계속해서 올라대는 성화에 못 이기어 아버지는 드디어 허락을 했다. 그 당시 울산 당포에서는 첫닭이 울자마자 배가 출항하여 ‘개번지’라는 곳에 가서 천초(우미)를 캐려고 날이 밝기도 전에 물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 배는 해녀들을 정성스레 돌보는 아버지가 날이 밝아야 물 알(밑)이 보이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었다. 도인네 배의 해녀들은 아침해가 동편을 붉게 물들인 후에야 물에 들어가 작업했다. 해녀들 대부분은 물속옷과 물적삼, 물수건, ‘족새눈’을 쓰고 물 속으로 침병침병 뛰어들었다. 족새눈은 주로 한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네의 과거 명칭인 ‘켓동네’에서 빌어와 ‘켓눈’이라고 불렀다.

아침 바다의 맑은 공기와 바닷물의 차기가 온몸을 싸하게 한다.

도인은 먼저 테왁을 던져서 그것을 짚고서 살그머니 물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제주 바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의 깊이가 얕아서 처음 물질하는 사람에게는 덜 겁이 났다. 우미를 잔뜩 뜯고 나왔더니 동네 해녀 한 분이 뜯은 우미의 삼분의 이 이상을 다시 바다로 던져 버렸다. 도인은 소리쳤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뜯어 낸 우미를 다시 바다로 던지다니….

우미에도 개우미, 참우미가 있어서 던진 것은 필요 없는 개우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우미를 한웅큼씩 부조를 해주어, 도인도 다른 해녀들처럼 망시리가 그득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었다.

4, 5월에 시작된 ‘우미기연’은 7월까지 작업을 한다. 그리고 도인도 그 해 열심히 우미를 하여 돈 몇푼을 벌었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는 아버지를 따라다니지 않고 자신이 직접 출가 물질을 벗들과 함께 다니기로 결심했다.

18세에는 당포 ‘뒷벌르매’라는 곳에 물질 작업을 갔다. 남의 배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출가’라는 것을 한 것이다. 물질은 아직도 미숙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다.

보리쌀을 쪄낸 쌀과 흐린 좁쌀, 모인 좁쌀 꾸러미들을 가지고 갔다. 선주 네가 짐을 빌어서 방을 내주었는데, 한방에는 3~5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서로가 양식을 같은 분량으로 내놓고서 밥을 해먹고 기거를 하게 된다. 아침이면 특별한 반찬 없이 된장에다 밥 말아먹고, 물질하다 배가 고프면 배 위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화덕 불을 사른다. 그래서 몸을 녹여가면서 술에는 된장을 휘휘 풀어서 끓여가며 거기에 조 팥 덩어리를 넣는다.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죽처럼 된 먹이일지라도 남보다 한 수저라도 더 뜨려고 서로 눈치를 보아가며 먹는다.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므로, 하루의 피로에 지쳐서 미리 잠자리에 드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노래로써 시름을 달랜다. 주로 부르는 노래는 해녀노래이나 타령 류에 자신의 신세한탄을 담은 신세타령을 하게 된다.

19살 때 물질 갈 때는 동네 언니들을 따라서 구룡포로 갔다. 여객선을 타고 부산에 간 다음, 차를 타고 구룡포로 갔다. 강원도 구룡포에는 도대바당이 유명하다. ‘도대’는 등대라는 의미이다.

수심이 아주 깊었다. 이제는 도인도 어느 정도 기량이 능숙해져서 너댓발 깊이는 거뜰했다.

마침 그때 중신 온 김씨 집안의 남자 큰 누님이 같이 물질을 가게 되었다.

“우리 오래비는 도인을 아지망으로 해야되는데…” 하고 늘 도인의 물질기량과 부지런함에 감탄하여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당시 번 돈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아버지에게 드려서 아버지 용돈으로 쓰고 아버

지는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그 뿐이었다. 도인은 돈의 가치는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돈을 번다기보다는 일을 한다는,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한다는 그것이 더 좋을 뿐이었다.

그래서 17~19살 때에는 독립적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물질을 하였다.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니는 물질이 도인에게는 한결 자유롭고 마음 편했다.

2. 물질 성숙기

19세(1944)가 넘어서자 도인은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물질에는 자신이 생겼다. 두발 정도 던 물질이 세 발, 네발까지 물 속으로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 올 수 있는 기량을 가질 수 있었고 해산물도 남보다 수량이 많아졌다. 그리고 출가물질도 전라도 지역, 여수 소안도 지역 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나갔다.

그 해 출가물질을 갖다가 팔월 추석쯤에 집으로 돌아오자 부친이 결혼을 하라고 종용했다. 그때는 보통 중매결혼으로 중신애미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했다. 그 해는 두 곳에서 중신이 왔다. 둘 다 김씨 집안이었으나, 한 곳에서는 다시 전같이 오기를 신랑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장가가러 오지를 못한다.’라고 전같이 왔다는 것이다.

다른 편은 지금 남편이었다. 남편은 같은 행원리 출신으로 키가 크고 얼굴이 흰칠하고, 넉넉하게 보이는 호남형의 남자였다.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서너 곳에 중신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마침 같은 동네에 건강하고 튼실한 신부감이 있다고 해서 도인의 아버지에게 청혼 했더니 두말없이

“사주만 맞으면 아무렇게나 하시지요”

동갑내기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잘 알고, 대강 성격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도인은 이 청년이 싫지만은 않았다. 당시에 혼담이 오고가는 것은 어른들이 알 바이트로 본인의 뜻은 펴 볼 수도 없었으나, 결혼해서도 남자가 싫으면 그날 밤에 도망갔다던가, 육지 물질을 갔다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첩으로 드는 경우도 흔했다.

혼담이 오고 간 이후부터는 길가에서 만나면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다. 곧 혼인 날짜가 잡히고 그 해 음력 12월 28일에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행원리 김해 김씨 집안은 과거에는 행원리에서 최고의 집 자리를 가질 정도로 먹을 것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7살 나던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독자인 아들만이 있는 가정으로 단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말은 좀 많았으나 아주 인정도 많고,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도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는 31살에 남편 죽고 지금껏 홀로 살았다. 남편이 병이 나자 큰곳, 작은 곳하며 온갖 재산을 팔면서 살리려고 애써보았으나 운명은 재천이라 어쩔 수가 없더구나, 아들 하나 믿고 살았다. 너는 나보다는 낫다, 나는 너만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너까렸다. 그 말이 옳든 그르던 간에 도인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이었다.

혼수라 하더라도 가정이 어려웠고, 도인이 벌여 놓은 돈도 부모님이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단지 이불 한 채와, 요, 베개, 요강 정도였다.

남편은 이불과 요를 펴면 “내 발이 나오겠어”하고 농담했다.

사실 그랬다. 남편은 키가 크고, 이불은 짧아서 남편의 신장을 다 덮지 못한 것이다.

어떻든 결혼해서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서로 옷 걱정 밥걱정을 할 정도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정도로 관계가 얼마간 지속되었다.

도인은 봄이 되면 출가물질로 육지로 나가야 되고 남편은 일본과 부산을 오고 가는 밀감 무역선을 탔다. 그래서 비록 결혼이라는 것은 했지만 두 부부는 생활경제를 위해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나름대로 활동했다. 당시 제주의 어느 부부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붓한 신혼의 기간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 도인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울산 당포로 연락선을 타고 출가물질을 갔는데, 입덧이 나고 온몸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도인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한편 기쁘기는 했으나, 아기로 인해서 자신의 일인 물질작업이 방해나 되지 않을까 하여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살림에 보탬 돈이라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무역선을 타는 남편은 아주 사람이 실한 편이어서 받은 월급 중 50전 정도의 돈을 비정기적으로 부쳐왔다. 그러나 그 돈만으로 딸린 식구가 얼마 안되더라도 살림살기에는 힘이 부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비록 첫 애라 할지라도 이번 아기는 그렇게 바랬던 바가 아니었다. 유산이라도 되어버렸으면 하고 배의 맨 앞쪽 이물에서 바다로 풍덩풍덩 몸을 던졌다. 당시 사공으로 같이 갔던 박 하르방은 도인의 이러한 행동을 나무랐다.

“귀한 아기는 잘 키워야 하는 법이여”

이듬해 8월 초열흘쯤에는 남편이 이불과 아기 옷을 사고 제주에 왔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금 큰아들을 낳았는데, 다시 육지로 기별을 붙이자 얼른 와서 자신의 핏줄을 확인하고, 보고 곧 돌아갔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임신이 되어 장녀를 낳았다.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구룡포 바다에 물질을 갔다. 7명의 잠수가 미리 예약이 되고 갔는데 일이 생겼다. 우미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를 거기서 쉬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같이 간 해녀들은 바당이나 돌아보자고 난리이다. 서로들 테약을 들고서 바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우미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바다는 물우미가 바다 위로 둥둥 뜨는 곳인데, 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다.

가지고 간 쌀은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자 6~7군데 꾸어준 상황이었다. 도인은 “너네 머리를 써라, 전주 손에 잡혀서 여기서 허송 세월하는 것보다, 다른 바당으로 도망치는 것이 어떠냐?”

꾸어준 쌀도 있고 해서 남아서 기다리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결정은 도망치자는 쪽으로 났다. 구룡포에서 목 섬까지 산길을 탔다. 새벽 1~2시에 나서서 목섬에 이르자 거의 동이 터 올라오고 있었다. 목섬에는 고향사람들이 많이 물질 와 있었다. 그래서 숨어 지내기가 쉬웠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갔다.

도인은 용신내로 갔다. 거기서 고향 6촌 오빠의 배를 타고 우미를 했다. 9명이 한 배를 타고 우미 작업을 했는데, 초등은 거기서 보고, 중등은 목섬에 가서 우미를 해서 3층을 했다. 물질을 하며 고생을 하면 그 돈이 전부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때 목섬에 가서 우미 세 층을 한 돈은 6촌 오빠가 “누이야 제주에 가 있어라, 돈을 받아서 주마” 하고 약속했으나 그 뿐이었다. 제주에 돌아오자 내년에 주마하더니 영영 받지 못하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도 육지 전주들에게 돈을 먹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3세(1948)가 되자 온 마을이 벽적거리면서 수선을 떨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채 실감나지 않았다.

남편의 친구들이 와서

“너는 객지로 가라, 산에 올라 다닌 적도 없고, 서북 청년들과 어울려 나쁜 짓도 안 했으니, 우리는 갈 입장도 못되고, 아지망(아주머니)만 가라고 하면 뺏다가, 나중에는 너라도 살아남아서 복수해줘라”

어머니도

“애야 며느라 너희 남편을 육지 부산으로 보내볼게(보내자)”

그래서 남편을 살리는 길은 차비를 채워서 아예 육지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쌀과 옷을 준비했으나 배가 없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도인은 걱정하다가 당시 서북청년이었던 오빠에게 부탁을 했다.

“차비랑 양식을 준비하고 이 밤과 저 밤사이에 ‘한계목’으로 와라, 부산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배를 예약해두마”

남편을 떠나보내면서도 도인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남편을 보낸 후 남편의 책과 사진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혹시 남편의 흔적을 보고 내놓으라고 때거지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생이별의 슬픔도 잠시였다.

밤에는 서북 청년들이 총을 들고서 마을에 들어왔다. 무조건 사람만 보면 총으로 쏘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다. 딸애를 업고 부엌 고팡 속에 숨었는데, 그만 아기가 울어 아기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았다가 하마터면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 뒷날 아침 날이 밝았고 여전히 태양은 여느 날처럼 떠올라왔다. 온 마을이 피 냄새로 뒤덮였다. 이제 잘못하다가는 온 식구가 다 죽고 말일이였다. 도인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아들 손주랑 어머님이 맡으십서, 나는 딸애에게 젖병을 입에 물리고 길에 버려 두고, 나 혼자 만이라도 숨어 살쿠다. 내가 살아 있어야 다시 자식을 낳을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딸을 버리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때 시어머니는

“안 된다.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자식이 서넛이 되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큰손자를 데리고 마을 윗 편에 있는 굴속에서 숨어살았다.

며칠 뒤에 마을에, 어디에서 온 전갈인지는 모르나 소식이 왔다.

“살 사람들은 모두 월정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옆 마을인 월정리 공회당에 모였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을 벽 쪽으로 돌아서도록 하면서 총으로 팡팡 쏘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편 월정리 마을 사람들은 행원리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도인은 다시 행원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월정으로 간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아 월정 쪽 노랭이동산을 오고가며 가슴 졸였다. 한참 있다가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 자세히 보니 아들을 업고 시어머니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너도 살았느냐, 우리는 해변 아래 숨었다가 도망왔져”

며칠 후 반장, 조합장, 마을 유지들을 공회당에 모이라고 했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간 사람들은 담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말에 죽음을 예감했다.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총을 맞고서 쓰러졌다. 너무나 처참한 비극이었다.

창자들은 다 나와 있었고 다 죽지 않은 살아있는 신경으로 팔과 다리들은 흔들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찾아왔다. 자신을 숨겨달라는 것이었다. 고팡에서 숨기고 8일 동안 밥을 해서 먹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 행불 되더니 10일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그때 푹푹

한 행원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 서북청년들은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므로’라는 찬가를 부르며 지붕 위를 날아다니듯 다니면서 마치 미치고 날쌔 개처럼 이리저리를 돌아다니다가 보이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다. 사건이 지나갔다.

마치 악몽을 꾸느낌이고 살아있는 자신이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다시 도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나간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물질 작업에 열중해야 했다.

세 살 난 아이와 금방 태어난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강원도 ‘비야진’이라는 곳에 미역물질을 갔다. 바다 온 천지에 미역이 시꺼멓게 깔려 있었다. 우리 행원리 해녀들이 그 바다에 들어서 작업이 끝난 후면 마치 밭에 무성한 잡초라도 맨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여 휼하다. “동촌 해녀들이 앉았던 곳은 풀도 안 난다” “해녀 아긴 사흘만에 것(음식) 먹인다”라는 말이 실감났다.

그 해 4월에 전보가 날아들었다. 아버지 병이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각주 임자가 ‘깨끼아지망, 제주는 너무 멀고 또 딸이니까 가지 마시요’라고 했다. 도인은 ‘아버지 장사를 치르면 오겠소.’ 하고 약속하고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병명도 모르고 돌아온 날로부터 7일만에 돌아가셨다. 강원도서 연락이 왔다. 도인은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부쳤다. 동생들도 어려서 아버지 3년 상은 도인에게 맡겨졌다. 시집생활, 친정에 큰 일이 생기고 남편, 자식 등의 여러 일상사가 도인을 힘들게 했다. 과로와 신경쇠약으로 도인은 그만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후유증은 머리털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여 온통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너무도 창피해서 도인은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고 자신의 흉칙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살이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찾기도 했다.

24세 되던 해 충무 통영에 물질을 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남편은 통영에서 살림을 차리자고 찾아왔다. 일본에 돈벌러 갈려고 뱃삿을 지불하고 떠 날려고 했으나, 경찰관에게 잡혀서 세 번씩이나 차비만 날렸다는 것이다. 찾아온 남편은 반 거지 상이었다. 얼른 시장으로 간 도인은 삼베 천을 사다가 짧은 바지와 반소매 저고리를 만들고, 구두와 모자, 내의 등을 사다 주었다.

통영 사랑도에서 두 달 신혼살림과 같은 꿈같은 세월을 보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 다시는 일본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당시 통영 역시 어수선한 사회였다. 도인은 곰곰이 생각해 봤으나 이 곳 육지에 와서 잘못 살다가 사건에라도 휘말리면 시댁이나 제주사회에서도 책임은 도인에게 전가되는 것이었다. 다시 남편에게 확인하면서 물어보았다.

“여보, 차비 없다고 하지말고, 차비는 빌려서라도 일본에 가고 싶으면 가는 편이...”

마침 행원리 장하르방이 일본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배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크게 부정하지도 않았다. 도인은 얼른 시삼촌 댁에 가서 돈 5,000원을 빌려서 장하르방에게 넘기고 남편과는 생이별이 시작되었다.

배를 타고 남편을 일본으로 보낸 도인은 한편 외롭다기 보다는 우선 자식들을 자신의 손으로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이 온몸을 덮쳤다. 언젠가부터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운명을 예감하기도 했다.

일본에 들어간 남편에게서 일주일만에 잘 갔다고 편지가 왔다. 이 편지는 남편으로서 개인

적인 정을 주고받은 마지막 서신이였다.

이후부터는 한번도 소식이 없었고 20여 년 동안 무소식이였다. 인간은 냉혈동물은 아니지만, 그 냉정함은 어느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3. 상군 해녀기

뱃물질의 재미

도인은 30대엔 주로 육지에 출가를 하면서 뱃물질을 했다. 곧 한뱃 동아리의 잠수들이 배에서 주로 기거하는 데, 단지 밥을 해먹을 때는 인근 육지에 배를 대어서 밥을 해먹고 잠을 잘 때는 자갈밭이나 백사장 등에서 약간의 뜨대기를 의지해서 눈을 붙여 잠을 자곤 했다. 이러한 생활은 단지 괴로움만의 연속은 아니다. 늘 배 위에서 생활하고 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뱃사람들은 동지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료의식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단지 어부와 해녀가 각각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들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해녀들은 지나가는 고깃배에 손을 치고 장난을 걸면 어부들은 잡은 고기들을 반찬거리로 던져주고 서로 장난으로 농을 걸곤 하다가 지나간다.

해가 뉘엿뉘엿 바다로 잠기면 해녀들은 물으로 올라와 술에 쌀을 넣고 밥을 하기 위한 준비로 야단들이다. 먹을 수 있는 물을 떠오고, 돌을 이용하여 술턱을 얹히면서 나무나 지푸라기들을 주어다 불을 땀다. 좁쌀을 넣고 만든 좁쌀밥의 향기가 얼큰하다.

전라도 ‘넙도바당’에는 고등어가 많이 난다. 여기서 난 고등어를 여수로 혹은 충무로 팔러나간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해녀들이 보이면 한사람 당 다섯 개정도 썩 반찬 하라고 던져준다. 좁쌀 밥에 고등어 구이 맛이 일품이다.

그 날은 고등과 생복을 많이 잡았다. 잡은 물건을 부산에 팔러 가고 있는 데, 고등어를 잡던 어부들이 손을 친다.

“치를 돌립서”

“저기서 뭐라고 합니다”

해녀를 실은 배가 고등어 잡이를 하고 있는 배 쪽으로 키를 돌려서 가보니 엄청나게 많은 고등어가 잡혀있었다.

“여수나 충무까지 한 번만 고등어를 실어다 주면 그 값은 톡톡히 하겠소” 선주는 상황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해녀들을 섬에 퍼두고 고등어를 여수에다 실어다두고 돌아왔다. 많은 고등어를 얻고 돌아온 후 채취한 해산물을 부산에 가서 팔았다.

얻은 고등어는 소금이 없어서 간을 할 수가 없었다. 마을로 들어가 소금으로 물물 교환하여 고등어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계속해서 반찬으로 먹었다. 그때 너무 먹어서 이제는 고등어 반찬은 보기만 해도 신물이 날 정도였다.

섬에는 과중하는 농작물이라고는 정해져 있다. 특히 고구마라든가, 땅콩 등이다. 부식 거리라든가 먹을거리가 바다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구마가 굵어지게 되면 남의 고구마를 캐다가 썬먹는 것도 별미이다. 배를 섬 가까이에 대면 해녀들이 가서 고구마를 캐다가 뱃사공과 약속하여 신고 바다로 떠버린다. 그러면 감쪽같이 고구마 주인에게는 들킬 일도 없다. 또 섬 어느 집에서든 귀한 장작을 해서 쌓아둔다. 섬에서 불때기 위한 장작은 정말 귀하다. 주인 몰래 그것을 훔쳐다가 다시 배에 신고 도망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밥을 해먹곤 했다. 주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으나 어떤 도덕적인 회의

없이 장난으로 훔치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했다.

도인은 너무 겁이 많았다. 그래서 본인은 직접하지 않고, 해녀들에게 눈치만 준다.

“저 곳에 고구마 밭이 있더라, 고구마도 먹고 싶지?”하면 어린 해녀들이 어느새 사공과 약속하여 당장 시행하고 만다. 육지물질에서 이러한 일은 재미있는 일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남에게 말하기에는 창피하지만).

또한 이런 일이 육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미역과 같은 해산물을 캐어 오는 경우이다. 곧 미역 밭의 주인을 ‘각주’라고 해서 그 바다의 미역을 산 주인이 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다니다보면 자신들이 켈 바다보다도 더 많은 미역이 자라고 있는 바다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다.

‘어랑리’ 바당은 미역 좋기로 유명하다. 검은 미역은 바다 위로 미끈하게 드러누워 있다. 도인은 다시 해녀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자신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해녀들만 들어가서 미역을 따오도록 한 것이다. 재미로 한 일이지만, 하마터면 각주에게 들킬 뻔했던 일도 있다.

도인은 번 것 전부를 자신이 가진다. 왜냐하면 도인이 직접 해녀들을 모으고 인솔하고 갔기 때문이다. 다른 해녀들은 선주와 4대 6 혹은 3대 7의 비율로 자신이 잡은 해산물을 전주에게 3할 혹은 4할을 때 준다.

물질해서 번 돈은 육지에서 우선 얼마간 시어머니에게 보낸다. 5,000원이나 1만원 정도를 자식과 시어머니 생활비로 보내고, 다시 2,000원 정도 벌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반드시 드린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보여주기만 해라, 살림은 네가 하는 데, 나는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

도인이 갓 서른이 넘어서 일이다. 전라도에서는 물질 나가는 것을 ‘개발하러 간다’고 한다. 그날은 사촌 올캐랑 도인이 같이 뱃물질을 하는데, 도인의 경험으로 가시리와 파래가 바다에 지천으로 있는 모습이 마치 전복이 많이 붙어있을 것처럼 보였다.

“날랑 여기로 빠져 주곡, 형님이랑 저쪽으로 해 오십서” 그리고 사공에게는 “나중에 물질이 끝난 후 나를 태우러 읍서”

시누 형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한두 개 밖에 못했다. 바다 밑은 전부 둥근 돌로 된 둥글왓 이었다. 도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분명 이러한 바다에는 전복이 많은 데, 조금 더 바다 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모를 정도로 바다 밑에는 전복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과일처럼 돌마다에 전복이 한 두개 씩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도인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살그머니 빗창으로 전복을 튼 후(전복 떼는 것을 튼다라고 한다.) 다 떼어놓기만 하고 다시 자맥질을 하여 다시 따낸 전복을 주섬주섬 주워 가지고 물위로 올라와 망시리에 넣는다.

다른 바다에서처럼 하나를 따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물 속에서 동작을 많이 하면, 전라도 바다는 빨바다여서 물밑의 흙들이 일어나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날 전복을 10관 정도를 했다.

망시리가 가득 차서 테왁이 물밑으로 가라앉을 정도였다. 도인은 사공을 불러 손을 쳤다.

“빨리 와서 전복 받아 주십시오”

사공과 기관장은 도인이 늘 상 장난을 잘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는 줄 알고 오지 않았다.

“아줌마 장난하고 있지?”

그 날 도인은 전복을 엄청나게 틀었던(잡았던) 것이다. 사공과 기관장은 깜짝 놀랐다.

도인은 ‘머정’이 있었다. 머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운명적으로 바다의 전복과 같이 값나가는 물건을 잘 딸 수 있는 운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른 해녀들은 도인을 늘 부러워했다. 도인은 잘 잡지 못하는 해녀들에게 전복을 따서 500g이나 1000g 짜리 한두 개를 망시리에 살짝 넣어주기도 했다. 해녀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

“물엿 것은 골라 먹인다(물에 있는 물건은 선택해서 준다)”

‘골라 먹인다’라는 말은 선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도인은 ‘골고루 평등하게 먹는다.’라는 말로 해석했다.

이틀 뒤에 해녀 셋과 함께 굴속과 같은 곳에 들어갔다. 역시 그곳도 전복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전복하나를 트고서 손을 짚었는데, 그만 시신을 짚은 것도 같고, 사람의 엉덩이뼈를 만진 것도 같았다. 도인은 겁이 나서 곧장 물 위로 나왔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얼마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인이 위치를 가리키자, 마을 사람들이 가서 시신을 건지고 장사를 지냈다. 도인은 그 날부터 속이 메스껍고, 정신이 혼돈스러워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냇이 나갔다고 하여 무당을 빌어서 ‘새풀이’를 하였다. 그리고 도인은 성주가 물려서 반드시 그런 험한 것을 보면 새끼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조도섬은 잘잘한 전복이 많은 섬으로 유명하다. ‘전복 좋은 데로 보내줍사’하고 뱃물질을 갈 때면 반드시 용왕에게 기도한다.

전라도 곳곳의 섬이 도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며

도인은 직접 해녀물질 모집을 했다. 배선주가 해녀모집을 부탁한 것이다. 한동, 행원, 월정의 해녀들을 7~15명 정도 모집했다. 여수에 물질을 가면 배선주가 구해 놓은 방에 기거하며 숙식을 한다. 선주는 해녀들이 쓸 용돈이나 비용을 도인에게 전부 의뢰 했다. 반찬 비용이라든가 돈을 넉넉히 주면서 해녀들을 섭섭하게 하지 말도록 했다. 도인은 배선주가 사람 품이 넓어 보여 37세까지 여수 배 선주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해녀모집을 했다.

25세(1950) 때 음력 2월에 출가물질을 여수로 갔다. 오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서였다. 아들은 7살이 되고 딸은 5살이 되어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물질 간 곳의 자취방 주인집에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외손주가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제주도에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자주 권했다.

“양철야 제 손자 데리고 가서 니가 좀 키워줘라” 양철이는 도인의 별명이다. 가는 곳마다 장난을 잘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도인에게 별명 붙이기를 좋아했다.

도인은 얼른 “그러지요 뭐” 자신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동정심이 나서 얼른 대답했다.

복녀가 살던 곳은 가까운 마을 ‘강니’였다. 아닌게 아니라 자식이 일곱이며, 영감도 있었다. 가마니 거적떼기로 문을 달고 술에는 바랜 파래에다가 보리를 깎았던 등개가루를 넣고 죽을 쑤어 먹었던 흔적이 보였다. 아이들은 얼굴이 누르딩딩하여 빈혈기가 돌았다. 어머니가 다시 자기 자식을 키워달라고 졸랐다.

“동생 네야 우리 애 하나 데려다 딸 같이 키워라”

“넌 나랑 같이 가서 살래?”하고 묻자 아이는 도인의 가슴팍으로 확 달려와 안기는 것이었다.

6살짜리를 데리고 오자 자신이 낳은 딸보다는 한 살이 위여서 큰딸로 호적에 넣었다. 지금 복녀씨는 엄연한 이 집 장녀가 되었다. 해녀 물질 갔다가 남편을 만나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다.

26세에는 보길도에 물질을 갔다. 자취방 집에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는 손자들로 온 집안이 떠들썩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다른 데로 개가하여 손자 둘을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도인에게 “제주 각시야 저거 열두살인데, 공부는 안 시켜도 좋으니 밥이나 먹이고 옷만이라도 입혀줘라”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글도 철철하고 공부도 꽤 잘해서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너 나랑 같이 갈래, 고생하면 어떡할래?”

“고생해도 좋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들어오니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남의 자식이라니 하면서 한탄하였다. 도인은 자신이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문제는 도인의 장남 보다 나이가 위여서 호적에 올리기가 난처했다. 작은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결국은 시숙으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도 아들은 그에게 삼촌이라고 부른다. 곧 도인에게는 시아주버니가 되는 셈이다. 얼마 없어 동생이 보고 싶었던지 “아주머니 우리 동생도 데려다가 내 키우듯 키와 줘서”라고 했다.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도인은 차비를 마련하여 보길도로 일부러 가서 아홉 살 된 동생을 데려다 형 밑으로 호적에 넣어 21살까지 키워주었다.

남의 자식을 셋이나 데려오니 식구가 일곱으로 늘어서 곡식이 모자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바다에 가서 꽤나 툴을 해 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솔에서 삶는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 밥을 하는데, 보리쌀과 함께 섞어서 밥을 해 먹었다.

둘째 시숙이 21살 정도 되자 자신의 어머니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았다. 3년 정도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었다.

“아주머님 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큰집(교도소)에 다녀오고 해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또 다시 연락이 왔다. 교도소에서 나오고 전라도 색시를 얻어서 결혼을 한다고 했다. 현재는 아들 형제를 낳아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 육지여행을 갔을 때, 자가용을 몰고 도인을 찾아와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큰절을 한 다음에 하룻밤을 같이 잤다. 그리고 멍쌀 한말과 찹쌀 한말을 싸서 주며 제주도에 가지고 가시라고 했다. 어릴 때 데려다가 키워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도인은 생각했다.

4·3사건이 끝난 몇 년 간은 물질하러 들어가서 굶은 것, 헛것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도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일이다.

하루는 물 속 자맥질 끝내고 물위로 나왔는데, 커다란 붉은 말이 바로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다시 물 속으로 자맥질을 했다. 다시 나와보니 이 말이 동쪽으로 물 위를 휘휘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느 날은 흰 물수건을 쓰고 흰 물속옷을 입은 여인네가 감태를 이리 저리로 제끼면서 족세 눈을 쓰고 도인 앞으로 헤엄쳐오는 것이 아닌가.

도인은 아무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해녀들에게 ‘옵서 나가게’(어서 나갑시다) 다른 해녀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기여(그러자) 나가게’했다. 그날 이후 3일간은 물질을 하지 않았다

고 한다.

또 ‘오저여’ 부근에 잠수를 했는데, 물밑에는 큰 전복과 빨간 ‘북바리’인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도인은 그때 한 쪽에는 빗창, 한 쪽에는 작살을 가졌으므로 전복을 딸까 북바리를 잡을까 하고 망설였다. 그런데 도인이 여섯 발 정도를 들어갔으나, 바위 홈에 발이 낄 것 같고, 불안감이 엄습했다. 바로 옆에서 물질하고 있는 유욱이를 불러서 물건이 있는 곳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물소를 본 것이다. 큰 빨이 돈고 펄떡펄떡 날개를 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잡아먹을 것처럼 보였다. 껌싸게 벗들에게 나가자고 하여 모두 물 밖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도인은 아프기 시작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으나 시름시름 아파온 것이다. 동네에 살았던 무당은 남이 옷건 말건 ‘허우땃소리’(서우젓소리)에 맞춰서 어깨를 들르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말을 했지만 도인은 절대로 심방들이 주는 춤은 추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어깨를 들른다’는 것은 큰곳을 한다는 말이다. 그 해 여섯 번 심방을 빌어서 새풀이를 해서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삼대가 물질을

여는 해녀들의 안식처가 된다(2001)

복녀와 딸은 동갑이었다. 복녀는 물질기능이 모자라서 기가 죽었으나, 밭일은 누구보다도 잘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은 밭일보다는 바다에서 물질작업을 잘했다. 도인은 시어머니와 밭일을 하다가 옆 밭의 상군할머니가 ‘헉헉’하면서 신호를 하면 바다로 나간다. 같이 김을 매던 시어머니는

“바당에 혼자 강 가달춤이나 해(바다에 빨리 가서 물질이나 해)”

하면서 물질을 가도록 종용한다. 상군할머니는 ‘고래 상군’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물질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의기도 찬 어른이다. 그 날은 ‘새여’라는 곳에 물질을 가는 날이었다. 새여는 첫 동네 순봉이 아방 네 집 이문간(대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섬으로 파도 세기가 엄청나고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하다.

그 날은 썰물이 동쪽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이여차 이여차’ 하면서 나갔는데, 썰물이 어떻게나 센지 ‘새여’를 찾아 먼바당으로 나간 해녀들을 다 쓸어버릴 것 같았다.

“어어 하도리로 쓸어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할망덜 죽엄시민 우리도 죽곡(어떻게 할까, 할머니들 죽으면 우리도 죽어)”

모두가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행원리 한 노인이 불락 낚으러 갔다가 올라오고 있었다.

“요 여편네들아 죽으려고 여길 왔다, 이거 하도 아래까지 내려왔어”

“아 우리 계난 하도 왔쑤가?”

노인이 칩 줄을 던져줘서 그것을 잡고서 배를 타고 더뎡이물로 올라왔다.

“하마터면 소섬(우도)까지 불릴텐데, 저 배 만난 살아났저”

더뎡이물에 온 해녀들은 안심이었다. 소라를 돌로 뺏아서 여물을 먹고 허기를 채운 다음에 조금 더 작업을 하다가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물질 나가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종종 ‘미역무레’는 같이 나간다. 시어머니는 저쪽 편으로 도인은 가까운 편으로 미역을 훑고 지나간다. 그런데 시어

머니와 도인은 ‘미역이 많이 있어서 어느 곳으로 오라’는 신호는 ‘어허’, ‘어허’이다. 많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해녀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로만 한다. 시어머니는 남보다 더 물질 작업을 욕심있게 한다. 그래서 물질 작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다른 해녀들이 “늬네 시어머니 ‘어허’ ‘어허’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놀리기도 했다.

시어머니와 미역 무례를 하면 항상 며느리보다 나은 편이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미역도 어디장 가는가는’, 크고 너른 바위로 이루어져서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나, 별로 달갑지 않을 정도의 것을 했다”고 며느리를 놀린다.

그렇지만 소라나 고동을 잡는 ‘헛무례’는 도인이 며정이 있어서 많이 잡는다.

복녀가 20살이 되자 청혼이 들어왔다. 6살에 데리고 와서 키운 지 거의 15년이 되었다. 사위가 될 사람은 김녕 사람으로 서울에서 고모네 집에 살면서 직장을 다녔다. 그래서 결혼식은 서울에서 치렀다. 셋 시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결혼식을 치렀다.

모처럼 딸을 시집 보내니 자식이 한 명 떨어지는 것 같았다. 도인은 다시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싶었다. 고아원에 가서 두 달 된 계집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밤새도록 울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39세가 된 도인에게 젖을 먹이라고 야단들이다. 그런데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빨게 하자 거의 20년 동안이나 잠자던 젖줄이 일어나서 젖이 펄펄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름을 영숙이라 짓고서 17년이나 잘 키웠다. 아주 물질 작업이 뛰어나고, 남보다 빨리 물질 작업의 기량을 익혀나갔다.

남당은 해녀들의 신앙처

행원리에는 해녀들의 신앙처로 당이 두 곳에 있다. 알당과 웃당이다. 알당을 ‘남당’이라고 한다. 도인은 25세 때부터 해녀회 회장을 9년 동안 맡았다. 이때 권제를 받아다가 당집을 보수했다. 주로 정월 보름과 10월 보름에 제를 올린다. 보통은 웃당에 가는 데, 주로 3일 동안은 근신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한다.

정월 초 사흘 날은 신과세제가 있고, 정월 보름 제일에 ‘지드림’ 행사를 한다. 특별히 영등 곳을 하지는 않으나, 이날 행사가 영등곳 행사와 비슷하다. 그리고 칠월 열나흘 백중날은 마쉬제와 지드림 행사를 한다.

쌀로 만든 돌레떡을 가지고, 사과, 배, 밀감, 감 등의 과일을 마련하고 제숙은 바닷고기로 우럭을 3개 쓴다. 계란은 서너 개가 필요하다. 대신 의례의 특성은 돼지고기는 써서는 안되며 3일간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는다. 지에는 ‘큰지’와 ‘몸지’, ‘요왕지’가 있으며, 식구 모두에 따라 정성스럽게 쓴다. 큰지는 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거나 큰 일이 있었던 조상에게 받치는 것이고, 몸지와 요왕지는 식구들의 건강과 안녕을 혹은 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도인도 시어머니 부탁에 따라 큰지를 썼다. 계란반쪽, 돌래반쪽, 매한기 반쪽을 넣어서 썼다. 그리고 몸지와 요왕지는 식구 별로 2개씩을 썼다. 하나는 요왕에 기원하고 하나는 자신의 몸에 대한 기원이다. 그래서 아들 부부와 딸, 손자의 지를 싸다가 아들이 결혼 한 후에는 며느리에게 이 지를 싸서 기원하는 의례를 넘겼다. 과거 행원리 웃당은 밭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래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제주시에 살던 많은 고향사람들이 찾아와서 정성을 다한다.

해녀들은 해녀물질 중에 물 숨을 먹어서 죽는 경우가 있다. 자맥질을 했다가 너무 물엿 것

에 욕심을 내어 물위로 나오기 직전에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사람은 간 데 없고 테왁만 물위로 동동 떠 오르는 것이 예사다.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야 시신이 올라와 마을 개곶으로 동동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또 해녀들은 물에 들 적마다 반드시 약을 먹었다. 그것은 물질 작업을 할때 자주 머리를 밀어서 해산물을 따야 되므로 머리 속의 뇌가 흔들려 아프거나 온 몸이 쭈시는 등의 통증을 막기 위함이다. 곧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 것이다. 주로 뇌선, 콘택옥백, 사리돈, 신경통약 등이다. 이러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다가, 나불(과도)에 친다거나 하는 경우 죽음에 이르는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녀들은 죽는다는 개연성을 항상 품고 있다. 그래서 해녀노래에서 “혼백상자를 옆에 차고, 칠성판을 지영 물속을 오락가락 한다”고 자신들의 물질 작업을 정의한다.

이러한 불상사의 죽음이 있으면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굿을 해야한다. 주로 죽은 시신을 바닷가 근처에 두고 장사일을 정해서 치르고 난 후에 바다에 가서 물훈을 부르고, 새 풀이를 한 다음 귀양풀이를 한다. 물 속에서 빠져죽은 영혼을 불러서 집으로 모셔온 후 쯤상과 병풍, 명석을 치고 굿을 하는데,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잘 보내고 나중에 후탈을 없애자는 의도이다.

영숙씨가 17세가 되던, 8월 어느 여름날이었다. 도인은 제주시 오일장에 가서 새까만 포도를 사고 집에 돌아와 보니 복녀와 딸, 영숙 씨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왔다. 아침 새벽부터 개밭에 가서 호미를 가지고 깨를 베고 돌아 온 것이다. 물때라서 물질 작업을 가려고 준비중이었다. 수돗물에 가서 포도를 깨끗이 씻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영숙 씨가

“언니 여기에 벌레들이 많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벌레는 없었다. 도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오늘은 나 물질하러 가고 싶지 않아”

영숙씨는 손바닥으로 머리 이마를 짚으면서 말했다.

“빨래 할 것도 많은 데, 오늘은 가고 싶지 않으면 통에 담겨 있는 빨래나 해라” 도인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랑 언니가 모두 물질하러 나가는 데, 혼자서 집에 남아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닌 듯 테왁과 망시리를 들고서 따라왔다.

어느 때처럼 사리돈을 한알 씩 나눠 먹고 고무옷을 입기 시작했다. 두 언니가 고무옷을 다 입고 물에 들기 시작했다. 도인은 어깨 한쪽만을 끼우고 정신 없어 하면서 옷입기가 거북해하는 영숙씨를 보았다.

영숙 씨가 갑자기 “성님, 나 정신 없어”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 급히 고무 옷을 벗기고 보니 많은 똥을 싸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도인은 급히 차를 부르고 제주시 병원 응급실로 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똥을 싸면 죽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목숨이 있을 때 데리고 가라고 선고했다. 아닌게 아니라 돌아오는 도중에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도인은 아마 사귀가 들어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닷가 근처에 천막을 치고 시신을 지켰다. 집 밖에서 죽은 시신은 보통 집안으로 다시 들여놓지 않는 법이다. 비록 17살이지만, 어른 식으로 장사를 치르고 초하루 보름 삭망을 지내고 소상, 대상을 치렀다.

시집도 못 가본 너무나 억울한 영혼이었다. 그래서 도인은 귀양풀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승질을 치는 하룻 밤 하루 낮 동안 큰굿을 했다.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더뎡이물에서

역시 물것도 했다.

귀양풀이를 할 때, 영혼은 흐느꼈다.

“어머니 나 혼자 저승질을 어떻게 가, 어멍아 나 벗 없어 어땡가코?”

“어땡하느냐, 저승은 혼자서 가는 길이어, 혼자가라”하고 도인은 딸의 영혼을 달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일년도 채 못되어 물질하다가 죽고 말았다.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 딸의 꿈을 꾸었다며

“영숙이는 아마 좋은 곳에 간 것 같아, 물둥이를 머리에 이고 까만 저고리를 입고, 흰 치마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 꽃다발을 들었어, 그 뒤에 우리 딸이 서 있었어”

사혼을 위한 중신이 서귀포, 종달리, 행원리에서 들어왔다. 같은 동네에 사돈을 삼고자 행원리로 결정했다. 살아 있을 때 올리는 결혼식처럼 예단을 준비했다. 이부자리, 베개, 주전자, 그리고 계를 들었다가 탄 돈 50만원을 봉투에 넣어 사돈집으로 보냈다. 당시 50만원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죽은 딸의 영혼은 그 집안에서 아주 환대 받았다. 그 집안에서 딸의 영혼에 큰지를 바치고, 당에 가서 빌기 때문에 그 딸에 대한 특별한 정성은 하지 않고 비록 생을 달리했지만 상당한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도인은 69년 12월부터, 73년 3월까지 잠수회장을 했다. 행원리 해녀회는 6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안도인 회장은 3조합에 속해 있었다. 해녀회에는 각 조합마다 회장이 있고 부회장 1인이 있으며 그리고 전 해녀회를 통솔하는 연합회장이 있다. 해녀회장은 남자 어부들인 어촌계와 화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야한다. 회장을 맡았을 당시는 잠수계, 잠수회 주최 행원리민 경로잔치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나고 보람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기금을 모아서 당집을 보수했다. 날씨가 궂을 때 제를 들이기 위해, 해녀나 해녀 가족들이 제에 참여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제를 올리는 날은 당집 내부에 사람들이 뺑뺑이 들어차고 객지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어 만원을 이룬다.

이때는 한창 고무옷이 유행이었다. 고무옷을 입으면 12발까지도 능히 잠수가 가능했다. 세화에도 옷을 만드는 데가 두 곳 있었으나 도인은 제주시에 가서 옷을 맞추어 왔다.

자식들을 결혼시키며

아들은 3대 독자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기였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도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을까 봐서, 사람이 드나드는 길을 피해서 다닐 정도로 땅에 놓지 않고 키웠다.

그래서 남편은 아들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울 시키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없어 병이나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버렸다. 도인은 혹시 귀한 아들이 어떻게 될까해서 큰곳과 작은곳을 했다.

봉례 씨를 39살에 결혼시키고, 그 이듬해에 아들을 결혼시켰다. 남편은 등록이 안 되어서 올 수는 없었으나 친척을 통해서 구두와 옷, 결혼자금을 일본에서 붙여왔다. 아들에게는 두 아들 손자와 딸 손자가 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하고, 이제는 모두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딸 손자는 결혼해서 부산에 가 살고 있다. 결혼 자금은 마련되었지만, 계속해서 큰 일을 치르려니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 도인은 다시 출가 물질을 떠났다.

그때는 사촌 시누이가 같이 가게 되어 있었다. 사촌시누이는 해산달이 다되어서도 물질을 하다가 성님 곁에서 아기 낳아 오겠다고 극구 고집을 부렸다.

“물질하곡 아지망 한테서 아기나곡 조리하쿠다(물질하고 언니께 가서 아기도 낳고, 몸조리

도 함께)”

도인은 어쩔 수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얼마 없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용신네는 어장촌이라서 그런지 몸 가른 것(해산 한 것)을 사람 죽은 것보다도 더 가렸다. 아기 난 사람 때문에 물(쌌)이 부정탈 수도 있어서 우물결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서 구박이 아주 심했다.

도인은 아기 태를 깡통에 넣어서 바다로 가지고 나갔다. 던지려고 해도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남들 모르는 사이에 바다에 파묻기로 작정한 것이다.

캄캄한 밤에 큰돌을 일러서 작은 돌들을 파 깡통을 비웠다. 그리고는 묻고서 큰돌로 다시 눌러두고 사람들이 볼까봐 조바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튿날은 바람이 세고 폭풍우가 덮쳤다. 도인은 새벽에 바다를 산책하는 것처럼 해변가를 걸었다. 그런데, 예상했던 바대로 묻어둔 애기 탯줄이 바닷가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아무도 모르게 도인은 그것을 바위틈에 숨겨두었다가 날이 저물자 호맹이를 갖고 가서 파서 묻었다. 아기 난 후 한달간 몸조리를 마친 후 제주로 돌려보냈다. 그때 낳은 아기가 자라서 장가를 가고 다시 그 아들이 장가까지 갔다니 세월은 무상하기만 하다.

딸 역시 오빠와 3살 차여서 바로 결혼을 시켜야 만했다. 다시 남편이 “외딸인데, 섭섭하게 하지 말라”하면서 넉넉하게 돈을 부쳐왔다.

사위 된 사람과는 서로 이웃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 사위는 인상이 좋고, 어릴 적부터 아주 성품도 좋았다. 힘도 세고 건장한 청년이어서 도인의 맘에도 들었다.

“너 재종이에게로 시집 갈거냐?”

“안가쿠다”

“생각이 있어 여기 와서 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신랑집의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딸을 데려 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리고 당시 사위감은 구좌 지역의 장사들이 세화 학교에서 씨름대회를 했는데, 일등을 하고 서울에까지 대표로 가서 씨름 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건장하고 힘센 청년이었다.

둘이는 동갑내기로 돼지띠들이었다. 얼마 없어 위로 딸을 셋 낳았다. 네 번째 아이를 임신 하고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어머니 다시 딸 낳으면 어떻게 해?”

“나고 있으면 아들은 언젠가 난다”

미순씨는 네 번째 아기를 낳는 날까지 바다에 가서 물질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몸이 추워오더니 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아들을 낳았다.

은 집안 식구들이 좋아서 야단들이었고, 그 밑으로 다시 아들을 낳았다.

그리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시외할머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장사를 준비하고 성복제를 올리려는 시간에 무슨 편지가 오고, 이상하게도 ‘성님, 작은 마누라’ 등의 단어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도인을 슬슬 피해나갔다.

“고모님, 일본에서 아들 낳았다고 햐쭈다” 외사촌의 한마디다. 고모라고 하면 바로 도인의 시어머니가 되는 셈이다. 도인은 금새 알아차렸다. 일본에 간 남편이 혼자 살 리야 없겠지 만, 늘 생각해오던 꿈속과 같은 악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도인은 그래도 그러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손 귀한 집에 자식이 생겨서 잘된 일이 우다”

그냥 한마디를 뱉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방에 쓰러졌다. 아닌게 아니라 눈물이 “소를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 도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오리가 살 수 있는 연못이 아니라 온 방안이 밀물이 들어와 바다를 이룬 것 같았다.

너무나 울었다. 24세에 떠난 남편은 20년을 아무 소식이 없이 지내다가 지금 중년이 넘긴 44세가 되어야 연락이 온 것이었다. 20년 동안 기다림의 세월을 막 눈물로나 쏟아 붓는 편이 나올 듯 싶었고 한편으로는 사실을 알아 확인해서 한결 시원하기도 했다.

너무도 그리웠던 사람이고, 궁금했던 일이지만 사실을 확인하니 가슴속에 섞여 응어리졌던 상처가 마치 맑은 물로나마 확 씻겨져 나오는 것 같았다.

시외할머니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자나깨나 한숨만 푹푹 쉬었다. 그리고는 도인의 눈치만 살피면서 슬슬 피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차마 당신의 입으로 저간의 사정 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셋 시아버지가 부르셨다.

“아지땅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느냐, 말로는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었다.

“말씀하십시오”

도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리고 편지 온 그 날부터 지금까지 결심해 놓은 바가 있었다.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충격 받지 않고 처신해 나가겠다는 결심인 것이다.

자식도 호에 입적해야 하고, 한번 한국에 오고 싶은데, 지금 일본에서 등록이라도 해서 한국에 와 늙어 가는 어머니라도 꼭 한번 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자신에게서 호적을 떼어 일본으로 가면 도인 자신은 혼자 호적을 갖게 되고, 독신이 되어 도인이 낳은 자식들도 모두가 지금 남편과 일본에 살고 있는 작은 부인의 자식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이 남편과는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셈이다.

잔인한 운명이다.

“어머님 애비가 일본에서 저렇게 호를 벗겨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호를 벗겨 주라고는 도저히 내 입으로는 못하겠다. 지금까지 너의 남편을 살린 건 너였다. 이왕에 살려 주었으니 네 머리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해라”

그러나 도인은 자신에게 덮치는 모든 불운한 운명을 다 받아들일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있어야 이혼수속을 밟을 수가 있는데, 도인은 수를 쓰기로 작정하고 시삼촌의 도움을 얻을 결심을 했다.

“오늘 하루만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법원에 둘이 가서 판사의 심문을 받았다.

“왜 이렇게 한창 살 때에 이혼하려고 합니까?” 시삼촌을 옆에 두고서 도인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정이 없어서 못살겠어요”라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대답하자,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모든 서류를 해서 남편이 있는 오사카로 보냈다.

이후부터는 장가간 아들과 일본에 있는 남편이 서로 연락이 오갔다. 이제 남편은 어엿한 교포로 등록이 되었다.

시어머니를 앞두고 남편은 26년 세월이 반백이 된 머리와 작은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왔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암 투병생활로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물골을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들은 큰소리를 내며 울었다. 도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상당히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뒷전에 물러서서 쳐다보고만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만난 아들을 보면서 유언을 했다.

“애야, 애미를 울려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울리지 말라이...” 하고 어머니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남편이 없을 때 시어머니는 한 여성이면서 동지였다. 75세를 마지막으로 암 투병에 힘겨워 임종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며느리라는 한 여성을 남성에게 부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어머니의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집은 도인에게 정실부인으로 대접한다는 표시인지 너무 죽이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도 큰어머니라고 소개했다.

“부인 얻어서 자식 낳지 않겠어요, 외아들인데 잘 되었습니다” 도인은 가슴이 아파도 같은 입장의 여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들은 너무도 많이 남편을 닮아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얼굴이 준수하고 미남형이었다.

그날 밤은 두 처첩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시집간 복너씨는 지금도 동생을 통해서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도인의 안부를 묻곤 한다. 비록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닐지라도 부모를 생각하는 정이 끔찍하여 도인은 효성스런 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있는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데려다 키운 자식도 아주 좋아한다. 특히 복너씨를 좋아하는데, 복너씨는 남편과 함께 일본에 가서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두 자식을 시동생에게 맡기고 일본에 가서 슬리퍼 만드는 공장에서 10년 이상을 일했다. 두 부부는 많은 돈을 벌고 자식의 양육비랑 교육비를 시동생에게 부쳤다.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있다. 일본에 있는 아버지도 제주에 왔다가 일본으로 갈 적에도 부산에 들러서 집에 가서 묵었다 가곤 한다.

굿뱅씨도 일본에 가서 공장 노무자로 일을 하고 싶어했다.

“아이는 쓸 만하냐?”

차비랑 옷을 해서 일본으로 보내었는데, 경관에게 걸려서 제주도로 보내어지고, 다시 두 번째로 일본에 갔으나 거기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수님, 굿뱅이우다, 3년이나 연락도 못 드리고”

도인 자신이 데려다 자식처럼 기른 시동생이지만,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도인 씨를 너무 좋아했다.

4. 물질쇠퇴기

온 몸에는 병이 생겨

전복을 딸 때 쓰는 빗창은 개 날에 사다가 사용하면 재수가 좋다고 한다. 그리고 노란 녹이 쇠에 피면, 그것을 돌과 같은 데에 갈면서 장난으로 개+이나 하라고 한다.

그리고 나오는 녹물을 얼굴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혹은 귀에도 바른다. 그리고는

“빗창은 빗꾸래기 망사리는 망할 징조”

라고 한다. 아무리 빗창으로 전복을 떼어서 돈을 벌더라도 가정경제에는 도움이 안되고 망시리를 들고 물질하는 해친 영업은 망할 징조라고 하니 새겨 볼 만한 일이었다.

도인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따랐던 한 상군할머니는 얼굴이 곰보였다. 흰돌코지에 물질을 가면 바로 그 할머니가 생각나곤 한다.

“에 요것들 커서도 흰돌코지 밖에 까지나 갈 수 있을런가?”

이제야 물질 작업을 배워 펴작 거리는 도인네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다. 그리고 흰돌코지 동쪽으로 내려가면 집 채 만한 영(물속의 큰 바위)이 있는데, 그 속에는 백화가 만발하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용궁이 있어 근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 날 도인은 노락코지와 큰여목 사이를 빠져나가 물질하였다. 거기에는 큰 배가 태풍을 만나 파손되어 기계랑 파편들이 물 속에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전복도 트고(잡고) 소라도 텃으나 겁이 많은 사람은 그 곳을 못 본 체하고 지나가 버린다. 도인이 그 곁을 지나는데, 더욱 몸도 안 좋고 소름이 일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았으나, 계속해서 물질만을 했다. 보름이 넘어가자 몸이 아팠다. 제주시에 있는 내과 병원을 찾았다.

“큰병은 아니우다”

처방해준 약을 먹었으나 계속 열이 나고 통증이 심했다.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하자 “급성이 아닌 만성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되었으니 급히 수술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도인은 여섯 시간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석달이 지나서 집에 돌아왔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기 시작했다. 딸은 ‘아이고 어머니 죽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도록 했다. 9월 초 이틀에 큰굿을 하고, 초사흘에 대수술을 받았다.

그때 병원에서 꼬박 열두 달을 보내고 나왔다.

몸에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다시 물질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물찌에서 ‘조금’은 서물에서 다섯물인데, 물이 좋고 물 아래가 맑으면 ‘암조금’이고, 물알이 어두우면 ‘숫조금’이다. 물때가 그물어 일곱, 여덟물이 되어 물이 거칠어지면 ‘웨살’이다. 그 날은 웨살이어서 더뎡이물과 앞 바당에서 물질 작업을 했다. 그런데 배가 쓰리고 아파오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제주시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혹이 생겨 악성 종양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고서부터는 떨어져 있는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일본으로 연락을 했더니 약을 써보라고 했다. 화가 나서 누구 돈을 쓰더라도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서울에는 시삼촌이 살고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 결과 괜찮겠다는 말을 들어서 정말 안도감을 느껴졌다.

해산물을 캐었을 때의 기쁨(2000)

다시 물질 현장으로

도인은 아파서 누운 후부터 자신이 물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도 푸른 바다에서 테왁에 의지해 몸을 신고 하는 물질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 외에도,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물질을 하다보면 20~50여 마리의 곰새기(돌고래) 떼가 보이면 ‘물알로 물알로’나 ‘배알로 배알로’하고 외치면, 돌고래들은 해녀들 물질 작업하는 물밑으로 잠수하면서 지나간다. 어떻게 저런 미물이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들을 것인가? 참 신기하기만 했다.

도인은 기제사 때에는 자신이 직접 작살로 쓴 돛이나 우력을 제숙 용으로 쓴다. 올해는 병이 나서 병원에 만 자주 다니다 보니 제숙 거리를 사서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을에 방호방 아방이 (해변 가까운)바당에 가서 그물을 놓는데, 고기를 사러 갔다. 배 가득히 우력과 불락을 잡고 개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저 어젯밤에 꿈에 보였는데, 고기를 엄청 잡아서, 그렇치 않아도 고기 한 몫을 갖다줄려고 했는데, 잘 와서”

하며 우력 한 몫을 배에서 던져주었다.

해녀들 역시 상당히 전날 밤 꿈에 의지하여 다음날 잡을 해산물을 점치곤 한다. 곧 전복이라도 많이 잡는 것을 ‘소망인다(행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친 떡을 누가 갖다 주거나, 돼지꿈을 꾸거나, 상이 나서 배 두건을 쓰고 상복을 입으면 운이 좋아 해산물을 많이 따게 된다.

또 거북이를 보면 용왕의 말젓말애기(셋째딸)라고 해서 거북이에게 ‘소망 일게 해줍서’라고 기원하거나 절을 한다. 거북이는 대체로 물아래 모살통 이라든가, 영(바위)알을 살살 기어다니면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56세가 되던 해이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 갔다가 오면 밭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여자의 힘으로 돈을 모아서 재산을 일구는 것이 삶의 재미가 되었으나, 도인은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느라 재산을 일구어 보지는 못했다.

이웃집에서 밭을 팔겠다고 해서 도인은 욕심이 생겼다. 그 밭은 질왓(진땅)이기는 하나 마늘 농사도 잘되고 해서 샀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다. 조상전이 400평 있기는 해도 그것은 아들에게 곧 상속시켜 버리면 자신이 늘그막에 농사지을 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 밭은 900평이나 되어 꽤 컸다. 도인은 비록 약간의 빚을 지고 산밭이지만 보리밭에 김을 매면서 자신의 삶을 ‘검질매는 사대소리’에 실을 때면 한편 말할 수 없는 흐뭇함을 느꼈다.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재산을 일군다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다. 비록 남편이 일본에서 가방 만드는 공장을 해서 돈을 가졌다고는 하나 그것은 도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해녀노래를 무대에서

1993년 제주도청에서 조사차 온 사람들이 해녀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도인은 늘상 하던 노래를 그침 없이 불러대었다. 해녀노래 전수자, 문화재 후보라는 직함을 얻었다. 도인에게는 처음 얻은 관직으로 상당한 행운이었다.

이후로 해녀 노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에도 학교 선생들이 찾아와서 해녀노래를 듣고 갔다. 늘 부르던 해녀노래를 도인이 선창을 매기면 강등자나 김영자씨가 후렴을 받곤 한다.

출가 물질을 할 때 같이 다니던 터라 가사 엮음이라든가 호흡이 잘 맞아서 같이 어우러져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녀노래를 부르려면 옛 생각이 절로 나 눈물이 난다. 다른 제주해녀들도 다 마찬가지로의 삶을 살았겠지만 특히 도인의 노래가 슬픈 것은 당시 어려웠던 삶을 잊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사를 한 후 제주도 무형문화재 해녀노래 후보자여서 전수를 잘 시켜야 된다고 늘상 강조했다. 셋이서는 시간이 날 적마다 서로들 모여서 해녀노래와 더불어 제주도 민요 중 노동요를 부르곤 한다. 셋이서도 각자가 좀 잘 부르는 노래가 있다. 콩이나 보리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타작소리>는 강등자가 잘 부르고, <자장가>는 김영자가 잘 부른다. 그리고 서로 세 사람은 누구와 짝을 하든지 서로 다른 내용의 사설을 잘 엮어간다.

1996년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 행사와 제35회 한라문화제 제주바다 축제 민요경창대회에 찬조출연 했다.

그리고 97년 한라문화제 때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이중춘 씨의 칠머리당굿 행사와 함께 해녀노래 <이여싸소리>를 했다. 그리고 행원리에서 해마다 치르는 경로잔치에는 감초격으로 <해녀노래>를 하면 모였던 해녀들이 합창을 한다.

김녕리에 살고 있던 무형문화재 해녀노래 보유자 정순덕씨가 치매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도인은 자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늘 행원리 사람들은 해녀노래 만큼은 다른 곳에 주지 못한다고들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제주도 지역 어디를 가나 해녀들이 있지만 그 수가 많고, 극성스럽게 물질을 하며, 많은 수의 해녀들이 있는 지역은 바로 행원리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서 해녀노래를 조사하러 자주 들르곤 했다. 아마 김녕리 보유자가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행원리 해녀노래를 들으러 오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해녀들(2000)

문화재 보유자가 되고

도인은 나이가 들어도 가끔 바다에 간다. 물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을 넘어서서 과거를 회상하며 바라보는 것과 같다. 제주 여성이 바다물질을 하지 않는 것은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한 노인의 심정과 다름 아니다.

문화재 보유자 후보로 문화재 전수자금 비용이 한 달에 25만원 씩 입금된다. 오랫동안 보는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생활비로는 아주 적은 금액이다. 도인은 직접 물질해서 벌어들인 만큼 씹씹이는 아주 품이 넓었다.

밭은 딸에게 전세로 빌려줬다. 딸집이 옆에 있어 식사는 거의 딸의 집에서 해결한다.

1998년 3월에 해녀노래 보유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도청에서 직원들이 오고가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집중적인 조사를 했다. 그해 겨울에는 너무도 심하게 감기에 들렸다. 조사를 왔으나 노래는 썩 시원치 않았다. 젊었을 때 그 우렁찬 기백으로 불렀던 해녀노래가 컷전을 뱉들었으나, 잘 되지 않아 자신이 듣기에는 답답했다.

한편 도인은 자신보다 해녀노래를 더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기간 관록을 먹었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자신 밑에서 전수하던 강등자, 김영자 조교들과 행원리 마을의 명예를 생각할 때는 자신의 역할

은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차례의 조사를 마치고, 2000년 3월에 문화제가 되었다는 전갈이 오고, 방송국이랑 서울에서 온 조사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이다.

밭에 일하러 갔다가 다친 무릎 고통으로 이틀에 한번 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동갑이었던 남편도 늙어서인지 고향엘 자주 드나든다. 2001년 음력설 전에도 게이트볼 채 30대와 공을 일본에서 손수 사 가지고 와서 기부를 했다. 게이트볼 회원은 여자 아홉 분이고 남자는 스무 명이 넘는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채를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인 자신의 몫은 아직도 없다. 그래서 치지는 않고 구경만 한다.

다음에 올 때는 자신의 몫도 가져오기를 기다리지만 남편에게 부탁은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방에 걸려있는 여러 상패랑 기념패, 문화제 보유자 인증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동안 남편 없이도 홀로 잘 살아온 한평생, 오로지 바다에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바다에 와서 숨을 크게 쉬고 해녀노래 한 곡을 부르면 외롭지도 않고, 마음 편하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대고 부탁이고 무엇이 있겠는가? 가장 하고 싶지만, 못해서 유감스러운 것은 무릎을 다쳐서 물질을 못하는 것이다.

물 쪼에는 해녀들이 물질해서 밖에 나올 시간에 불턱에 가면 누가 많이 잡고, 어디에 많이 있더라는 등 화제가 만발한다. 그리고 마을 해녀들은 노쇠한 늙은 해녀를 동정이라도 하듯 잡은 소리를 몇 개 던져주기도 한다.

도인은 생각한다. 다리가 나으면 다시 물에 들어 과거에 수없이 보았던 바다 속의 생명들을 만나겠다고...

요즘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낯설은 외딴 섬에서 물질하던 전경과, 한 많았던 과거의 삶과 행원리 바다 속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간다

<생애사를 쓰면서>

이 글은 제주해녀 민속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쓰여졌다. 당 시대의 삶이 민속학 연구의 한 영역이라면, 한 해녀의 일대기 속에는 민속적인 자료가 얼마만큼 반영되는가? 그리고 개인의 생애사와 민요사설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남의 일대기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안도인 할머니를 길다면 긴 시간을 만나 왔다. 10년 전 문화제 전문위원 발령을 받았을 때, 만나서 해녀노래를 들었다. 처음 들은 인상은 노래에 담겨있는 인생의 한 그 자체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집중적인 면담조사를 했다.

할머니가 부른 해녀노래 사설은 공식적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 그대로다. 할머니의 노래는 그침이 없었고, 온종일을 노래할 수가 있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를 생의 후배인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다가 자신의 노래에 취해 울고 만다.

너무나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솟아오를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차마 보일 수는 없었다.

제주도 민요 중 멧돌·방아노래라든가,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에서 오는 정서 때문에, 동등한 여성의 입장에서 눈물이 돈다. 다른 지역의 민요를 들었을 때는 그

렇지 않은데, 제주민요는 그렇다.

태어나고 자란 지역적인 공감대, 삶의 정서에 대한 이해, 혹은 자신의 고향 땅에 대한 무모한 애착에서 오는 생리일까?

집중적으로 할머니를 살피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미덕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 아무 탈 없이 키운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 아주 인정 많고 후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글은 진정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할머니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읽어 볼 수조차 없다. 조사가 끝난 후 하루 조사 분을 전부 정리하고 오라고 신신 당부 하신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행원리로 차를 몰면 할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부 읽어 드리고 잘못 된 부분, 혹은 빠진 부분을 수정했다.

아주 기억력이 좋으셔서 자신의 삶을 구슬 꿰듯 꿰어나간다. 이 글은 할머니의 말을 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약간이라도 할머니에게 누를 끼쳐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할머니 울지 마시고, 건강하세요(2004년 정초에).

그러나 할머니는 2004년 6월에 숙환으로 타계했다.